'K뷰티' 아모레 ▶A20면
분기 최대 실적

권오준 포스코 회장 ▶A16면
"死卽生 각오로 쇄신"

한국경제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hankyung.com
제16229호 | 대표전화 02) 360-4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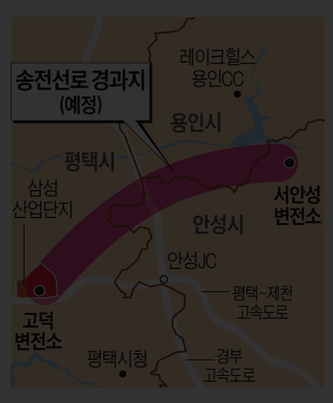
Market Index 〈14일〉 4판

코스피지수	2120.33	↗	+6.17
코스닥지수	699.27	↗	+7.04
국고채금리 (3년물, 연%)	1.857	↘	-0.007
환율 (원·달러)	1090.50	↘	-9.20
원 엔(100엔당)	915.54		
원 유로	1240.66		
일본 닛케이	19,764.72(+139.88)		
WTI(유가)	60.50달러(-0.25)		

KDB대우증권

또 송전선 막아선 '지역 이기주의'

삼성 반도체 평택단지 착공 일주일만에 '차질' 일자리 창출 무산되나



지난 7일 착공한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가 주민들의 송전탑 등 송전선로 건설 반대로 전력 인프라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전력은 단지 입주 예정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2019년 6월까지 송전선로를 건설해 200만㎾의 전력 공급체계를 갖출 계획이지만 주민과의 갈등으로 6년 지연된 '밀양 송전탑 건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관련기사 A3면

한국전력은 14일 경기 용인 명지대 용인캠퍼스에서 입지선정위원회 5차 회의를 열어 안성 서안성변전소에서 평택 고덕산업단지 인근 고덕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의 경과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주민대책위원회가 명지대 앞에서 400여명이 참가하는 반대시위를 열기로 함에 따라 학교 측이 입지선정위의 장소 사용을 취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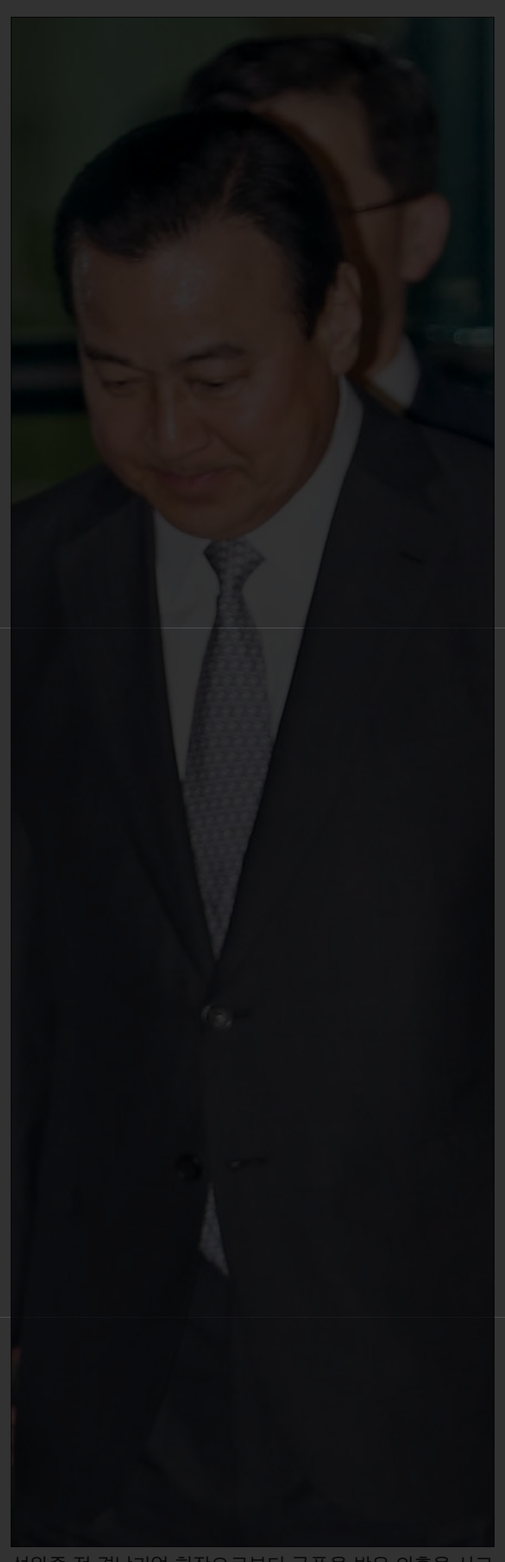
289만㎡인 평택단지의 생산설비가 모두 완공되면 200만㎾의 전력이 필요하다. 한전은 1기 라인 등 초기 전력 수요 50만㎾는 임시설비 등을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50만㎾는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요청으로 2021년 6월 완공 예정이던 송전선로 건설을 2년 앞당기기로 했지만 주민의 반발로 불투명해졌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50만㎾로는 반도체 라인 1기 이상을 돌리기 어려워 라인을 증설하려면 반드시 추가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신규 라인 착공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생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로 기대되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마지혜/남윤선 기자 looky@hankyung.com

'피의자 이완구' 검찰 조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5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A29면
연합뉴스

"신세계백화점 본관 〈서울 충무로 본점 명품관〉 통째로 면세점 만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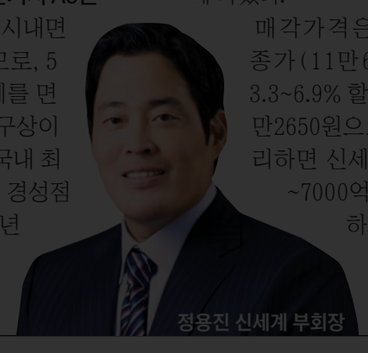
삼성생명 지분 7000억 팔기로

신세계그룹이 서울 충무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명품관) 전체를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결정했다.

신세계는 14일 "강남점과 본점을 놓고 검토한 끝에 시장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본점 본관에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8면

신세계가 추진하는 시내면세점은 1만8180㎡ 규모로, 5층짜리 본관 건물 전체를 면세점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 건물은 1930년 국내 최초 백화점인 미쓰코시 경성점이 있던 자리로, 1963년 11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들어섰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세계는 최근 850억원에 인수한 본점 옆 한국SC은행 건물에 다양한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해 '프리미엄 문화 면세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약 300만주씩 총 600만주(3%)를 15일 오전 증시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기로 하고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매각가격은 이날 삼성생명 종가(11만6500원)보다 약 3.3~6.9% 할인한 10만8460~11만2650원으로, 블록딜을 마무리하면 신세계그룹은 6000억~7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

김병근/정영효 기자 bk11@hankyung.com

ASK 2015 국내 최대 대체투자포럼

국민연금·KIC, 헤지펀드에 올 3兆 투자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올해 3조원 이상을 글로벌 헤지펀드시장에 투자한다. 대형 보험회사, 공제회도 헤지펀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연 5% 이상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련기사 A12, 13면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 'ASK 2015 글로벌 사모·헤지펀드 서밋' 이틀째인 14일, 기조연설에 나선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올해 하반기 약 20억달러(약 2조2000억원)를 해외 헤지펀드에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3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대체투자 자산군(헤지펀드시장)을 새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KIC도 현재 22억달러(약 2조4000억원) 수준인 헤지펀드 투자 규모를 연내 30억달러(약 3조3000억원)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도 올해 1000억원 안팎의 자금을 국내외 헤지펀드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간 국민연금(0.5%)과 KIC(2.5%)의 헤지펀드 투자 비중이 글로벌 연기금(5~1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규모로 따지면 최소 50조원이 넘는다.

좌동욱/고경봉 기자 leftking@hakyung.com

'눈먼 돈' 국고보조금 … 절반이 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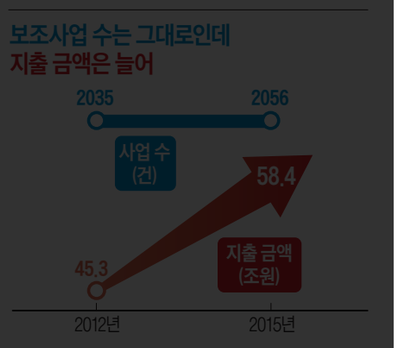
'페이고'로 나라 곳간 지키자

지난 3년간 지출한 국고보조금 절반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 기간 보조금 규모는 전체 예산보다 두 배 빠르게 늘어났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국가 예산으로 '눈먼 돈'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다.

▶관련기사 A4,5,33면

한국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의 '2012~2014년 보조사업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평가한 보조사업 1054개 중 정상 판정을 받은 것은 498개(47.2%)에 그쳤다. 나머지 556개(52.8%)는 폐지나 통폐합, 사업 방식 변경 등의 지적을 받았다. 보조금 액수로는 19조6789억원 중 10조8562억원(55.1%)이 문제 판정을 받았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 등으로 보조사업이 늘어났지만 부처 칸막이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년간 보조사업 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보조금 액수는 2012년 45조3000억원에서 올해 58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8.8% 급증했다. 이 기간 예산 증가율(4.9%)의 두 배 수준이다.

조진형/이승우 기자 u2@hankyung.com

KT 이어 LG U+도 데이터 요금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무제한으로 쓰고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데이터 요금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관련기사 A15면

LG유플러스는 15일부터 '데이터 중심 LTE 음성자유' 요금제를 판매한다. KT가 지난 8일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도입한 지 1주일 만에 비슷한 요금제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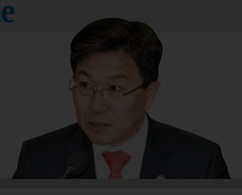
데이터 요금제와 지난달 시행한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로 국내 통신시장이 격변하고 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는 휴대폰 유통망을 바꿔놓을 전망이다. 제도 도입 이후 통신사 대리점이 아니라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최신 스마트폰은 지원금보다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해서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한경 Inside 구독신청(전국) 1577-5454

산업부 장관 윤상직 '최장수' ▶A9면



내달 2만7000가구 집들이 ▶A25면
책마을 ▶A26,27면
BIZ Insight ▶B1~8면